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4. 6. 26.(수) 14:00

탄녹위 김상협 공동위원장, 「2024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베트남 총리, 중국 기후특사와 기후대응 및 녹색성장 협력방안 논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6.25(화) ~ 6.27(목)간 중국 다론텐에서 개최된 2024 하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례회의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김상협 위원장이 베트남 총리, 중국 기후특사 등과 면담하여 기후대응과 녹색성장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출범한 글로벌 민간포럼(일명 다보스포럼)으로, 중국은 2007년부터 매년 다론텐 또는 텐진에서 하계 세계경제포럼을 개최
 - ※ 이번 포럼은 “성장을 위한 다음 개척지(Next Frontiers for Growth)”라는 주제로 160여개의 회의 등으로 구성, 1,6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기후와 자연, 에너지 정책, 인공지능 기술, 인적 투자 등에 대해 논의
- 팜 밉 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탄소 감축 노력과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린 ODA 등을 통해 베트남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고,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국제감축사업을 함께 적극 추진할 것을 설명했다.
 - 또한, 김 위원장은 베트남 정부의 2025년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팜 밉 쩡 총리와 김 위원장은 양국이 녹색성장에 대해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전세계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 파리협정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협의체로 한국 포함 12개국 참여중

- 한편, 김 위원장과 류젠민(Liu Zhenmin) 중국 기후특사는 금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자고 하였다.
-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류 특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였다.
- 김 위원장과 류 특사는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관련 한중일을 넘어 아시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11월 COP29의 협상 동향에 대해 협의하고 성공적인 COP29가 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김 위원장은 지반 톤다만(Jeevan Thondaman) 스리랑카 수자원인프라 개발부 장관과 면담하여, 우리나라와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 간 물, 기후 적응, GGGI 등을 통한 협력사업 등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것을 강조하고, 조속한 양국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 사업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하였다.
- 김 위원장은 6.25(화) ‘경쟁적 세계에서 기후 리더십’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확대되고 있는 녹색 ODA와 함께 한국에 소재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 기구(GGGI)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김 위원장은 6.26(수) ‘산업 생태계 전환’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발전 분야에서는 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탄소 감축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핵심 기후 기술 연구개발 지원, 녹색 금융 모집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하계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국제감축사업, GCF·GGGI 등을 통한 협력 제고 등 우리측 관심 의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유용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탄녹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붙임 : 1. 2024 하계 다보스 포럼 개요
 2. 2024 하계 다보스 포럼 사진(별첨)

담당부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소통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유식	(044-200-1969)
		담당자	사무관	윤재희	(044-200-1970)



1. 다보스 포럼 개관

- (정식 명칭)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다보스 포럼)
(Annual Meeting of the World Economic Forum)
- (설립) 1971년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유럽 기업인을 다보스에 초청, ‘유럽 경영 포럼’ (European Management Forum)을 개최한 데서 출발
 - 1987년부터 지역적 성격을 탈피, 범세계적 이슈 논의의 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3,000여명의 글로벌 정치, 경제, 언론 리더들이 참석
 - 중국은 2007년부터 매년 다렌과 텐진을 오가며 하계 다보스 포럼을 개최
- (목적) 세계 각국의 분야별 지도자들 간 격식없는 접촉을 통한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발전에 기여
- (역할 및 위상) 정계·재계·학계·언론계 글로벌 리더들이 주요 세계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

나. 2024년 하계 다보스 포럼 개요

- (정식 명칭) 2024 새로운 챔피언 연례회의
(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 2024)
 -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또는 하계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움
- (주제) “성장을 위한 다음 개척지(Next Frontiers for Growth)”
 - ※ 핵심 의제 : ① 새로운 세계 경제(A New Global Economy), ② 중국과 세계(China and the World), ③ 기후·자연·에너지의 연결(connecting climate, Nature and Energy) ④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in the Age of AI), ⑤ 인적 투자 (Investing in People) ⑥ 산업을 위한 새로운 개척(New Frontiers for Industries)
- (일정 및 장소) 2024.6.25.(화)-27.(목), 중국 다렌
- (프로그램) △주제별 공개세션 △비공개 행사 △부대행사 등 약 150여개 행사 개최